

변창흠 장관, 현장행보 본격화

“지방국토청을 국토교통 현장행정 실행기관으로”

- 24일 익산·25일 부산지방국토청, 지방항공청 찾아 기능전환 강조 -

-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다.
 - 변 장관은 “그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로, 하천 등 SOC 확충의 최일선 현장조직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”고 격려하면서,
 - “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확산,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 공공안전 강화 요구 및 자율주행, 지능형교통체계(ITS)와 같은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의 역할이 새롭게 변화할 시점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- 변창흠 장관은 “지방국토청은 도로, 하천 중심의 집행기관이 아닌 국토교통 모든 분야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행하는 동시에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 변신해야 한다”면서,
 - “오는 3월부터 지방국토청에 교통안전팀을 신설하고, 지자체,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 - 아울러, “균형발전, 교통안전, 건설안전 등 분야별로 지방청의 업무와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한편, 변 장관은 25일에는 부산지방항공청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잇따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, 코로나-19 방역대응과 지방청 기능강화 추진현황을 차례로 점검할 계획이다.

2021. 2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